

# 이름 없는 임시관리 번호 아동 2명 행방 묘연

### 2016·2019년생 남아 보호자 외국 출국 기록만 확인 태어난 후 출생신고 안 돼 이름·주민등록번호 없어 경찰, 제주도 의뢰에 따라 아동 소재·안전 확인 착수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은 아동 2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가 '임시관리번호 아동'들의 행방을 파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러 온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접종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발급한 번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행정용 고유번호인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이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또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이 보건소를 찾게 되면 보건소에 의해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되고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돼 관리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파악해오다 지난해 10월 임시관리번호 아동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그해 11월부터 각 지자체에 해당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제주에서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남아 있던 아동은 제주도 29명, 서귀포시 6명 등 총 35명이다. 이중 32명은 양 행정시 조사에서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거나 보호자 주소지 변경으로 타 지자체로 조사 업무가 이관됐으며 나머지 3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아동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태어난 여아 1명과 남아 2명으로, 3명 모두 어머니 또는 아버지 쪽 국적이 외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중 최근 연락이 닿은 2015년생 여아의 부모와 영상 통화를 시도해 해당 아동이 외국에 안전하게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보호자의 외국 출국 기록은 있지만, 연락이 여전히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추적 중이다. 2015년생 여아의 경우 주민

등록번호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보호자 자녀로 등록돼 이름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6년생과 2019년생 남아 2명은 그러하지도 않아 현재로서는 이름마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출입국 기록 자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아동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의국인청에 보호자가 외국으로 나갈 당시 대동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만약 해당 아동의 출국 기록이 확인된다면 영사관을 통해 정확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소재·안전이 파악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왜 그동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사회보장급여 조사 742가구 자격 중지

### 제주시, 3564가구 변동 1627가구는 급여 감소

제주시는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3500여 가구의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25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 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

의 변경 사항을 들여다본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53.8%인 3564가구의 변동 사항이 확인됐다. 그에 따른 반영 내용은 자격 중지 742가구,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다.

이 가운데 자격 중지, 급여 감소 가구에 대한 사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217가구)를 통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학내망 고도화' 1차 구축사업 성공 마무리

### 도교육청, 43개 초·중·고 대상... 통신 속도 빨라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43곳(초 30·중 12·고 1곳)을 대상으로 학교 학내망 통신 속도를 10Gbps까지 개선하는 '학내망 고도화' 1차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학내망 고도화 사업은 도내 학교 통신망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10Gbps 속도가 가능한 케이블로 교체하고 네트워크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던 네트워크를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1차 연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77억원을 투자해 디지털선도학교와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학교 등 43개교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을 통해 100Mbps에서 1Gbps까지 제각각이었던 학교 통신망 속도를 10Gbps로 고도화했으며, 학교별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속도 향상은 물론 대용량 콘텐츠 활용 등 교육 서비스 이용 안정성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28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 학교에 학내망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 4·3 추념식서 극우단체 저지 유족 등 무협의

지난 2023년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당일 4·3학살에 참여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의 극우단체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혐의를 벗었다.

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이하 서청)란 단체가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청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는 당연하다"면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편협을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종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을 보내야 했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북청년단은 4·3 당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다.

이상민기자

#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제주연안 6~10일 강풍 등 예상

제주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발령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부터 오는 10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6일 오후부터 제주 앞바다에는 초속 10~16m의 강풍이 불고 2~4m 높이의 물결이 일면서 해안이 너울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등 기상악화가 예상된다"며 "연안 활동자들은 바다와 근접한 갯바위, 방파제에서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함덕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관광객 2명(검은 원 내)이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 함덕해수욕장 해상서 관광객 2명 구조

사진 촬영 중 파도에 휩쓸려 제주도 내 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9분쯤 제주도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40대 A씨와 B(9)양이 파도에 휩쓸려간다는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A씨와 B양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갯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아례조성

포트모

화분모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모,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성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모,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성 / 유라조성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모,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모,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DA IN 다인산업(주)**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